

# 지역 원로 음악인들 오케스트라 만들다

### '골드필 오케스트라' 11월 창단 시향 활동·대학강사 등 50명 구성 내년 봄 창단연주회 개최 계획 문화소외지역 찾아 자선음악회



김농학 이창훈 김유정

평생 예술활동을 해온 악기 전공자들이 뜻을 모았다. 2020년의 끝자락, 지역에서 활동하는 원로 음악인들이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것.

광주를 중심으로 연주활동, 교육활동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50세 이상 음악인들이 모여 지난 11월 골드필 오케스트라(Gold Phil Orchestra)를 창단했다.

이들은 공연활동으로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며, 열정적인 에너지로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연륜이 있는 사운드로 후배 음악인들의 분이 되고 희망이 되고자 올 초부터 오케스트라 창단을 계획했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무지크바움오케스트라, CNS윈드오케스트라,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 광주챔버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음악계 원로들이 모여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골드필 오케스트라의 '골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 '금'을 의미한다. 오레도록 해결 같은 모습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골드필 대표는 김농학 국립목포대 음악과 교수, 김유정 광주시향 악장, 이창훈(전 광주시향 악장), 운영 실무진 김유정(전 광주시향 단원), 문맹권(전 대학 강사) 등이 참여한다.

오케스트라 단원은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명예·정년퇴직한 사람부터 음악을 전공한 교사, 대학에 출강 중인 강사, 관현악을 전공한 주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골드필 단원들은 모두 2021년 기준 50세 이상인 것이 특징이며 현재 국공립 교향악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흥과 열정은 어느 젊은 악단 못지않다. 단원 대부분이 30년 이상의 연주경력을 갖추고 있어 실력 또한 보장되었다.

골드필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김유정(현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 대표)씨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는 원로오케스트라가 있지만 광주에는 없었다"며 "관현악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 연주할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 오케스트라만의 매력을 전하고자 창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퇴적이 늘었

어요. 저도 시향에서 26년간 활동하다가 명예퇴직을 했죠. 예전부터 퇴직한 음악인들 사이에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가 가기 전 창단하게 돼서 기쁩니다. 코로나 19로 창단식도 못하고, 창단공연은 내년으로 미뤘지만 열심히 준비해 다양한 공연 펼칠 예정입니다."

골드필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는 내년 봄에 열릴 계획이다.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정기공연, 초청공연, 음악나눔, 교육봉사, 축제 참여 등으로 활동을 넓혀갈 예정이다.

김유정씨는 "내년에는 골드필 오케스트라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면서 공연을 펼칠 것"이라며 "음악을 나눌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자선음악회 등을 통해 문화소외지역에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시립극단 창작 희곡 공모, 이정아 '양림' 당선



부하면서 20년 전부터 광주 양림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양림 지역을 배경으로 논문까지 썼지만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양림의 역사가 안타까워 희곡 공모에 응모했다"면서 "지금까지 양림은 나의 빛이었다. 버려진 자들을 구원자로 세우는 양림을 기억하고 그것 또한 광주의 정신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한다"며 당선 소감을 전했다.

광주시립극단 제1회 창작 희곡 공모에 이정아(사진)작가의 '양림(楊林)'이 당선됐다. 광주시립극단은 우리지역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발굴, 극단을 대표하는 레퍼토리 공연 제작을 위해 희곡 공모를 진행했다. 지난 6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15작품이 응모했다.

'양림(楊林)'은 전대받던 나환자, 결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던져 죽음의 땅인 풍장터였던 '양림'을 생명의 숲으로 변화시킨 민초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이 작품은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과 광주의 근현대사가 잘 어우러져 '양림'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라보게 하는 작품이다"는 평을 받았다.

이정아 작가는 "연세대 신학과에서 선교학을 공

'양림(楊林)'은 2021년 상반기 광주시립극단 정기공연으로 제작될 계획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공모

### 생활문화예술 등 4개분야 24억 지원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은 '2021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아외공연장지원사업 등 총 4개 분야에 24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전통·다원 등 문화예술 전 장르에서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청년예술인장착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총 15억여 원을 지원한다.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사업은 신진예술가를 발굴하고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지역주민연계 퍼블릭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공인된 기관(단체)과 상호교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은 광주형 공연 활성화 및 특화된 공연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문화예술단체(전문·기초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의 창작 및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예술인장착지원사업(만19-39세 이하)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과 예비예술인을 지원한다.

또한 세부사업별 최소·최고액 범위를 없애고 지원금을 '영역 지원'하며 무작위 추첨방식도 유지된다. '지원 휴식년제'에 따라 개인은 최근 1년, 단체는 4년 연속지원(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은 2년 연속)을 받은 경우 2021년도 공모 지원이 불가하다.

공모 관련 사업설명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모 접수는 2021년 1월 18일-29일 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문의: 062-670-7441, 7443, 744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신축년 새해 평화 기원... '김원중의 달거리' 올 마지막 공연

### 오늘 온라인 생중계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빵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올해 마지막 공연이 28일 오후 7시30분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올해 김원중의 달거리는 코로나19 대중음악, 국악, 클래식, 샌드아트, 댄스, 빵 만드는 갤러리 등 다양한 공연을 온라인으로 펼쳐왔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이사'로 우물안개구리, 국악프로젝트팀, 김원중, 느티나무밴드 등이 출연해 신축년 새해의 평화를 기원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화가들의 작품을 공연장에서 선보이는 '빵 만드는 갤러리' 아티스트로 활동중인 소유 작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 그 동안의 작품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작가의 삶을 만나고자 한다.

아울러 올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음반 프로젝트 '나는 1980년 이후 생이다'에 참여한 라태양과 김유정씨가 무대에 올라 80년 5월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김원중의 달거리'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빵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올해 마지막 공연이 28일 오후 7시30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지난 2003년 시작한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은 남북 분단 상황과 5·18민주화운동 등 민족적 비극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를 통해 지역의

공공예술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으며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아티스트와 함께 공공예술의 가치를 전하며 평화의 씨앗을 키워왔다. 문의 010-3670-580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ACC, 31일까지 '집콕 문화생활 프로그램' 진행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은 개관 5주년 기념 송년 행사로 'ACC 집콕 꾸러미와 함께하는 즐거운 집콕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 가정에서 취미생활을 즐기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ACC 집콕 꾸러미'는 ACC 문화상품(스캐치북, 컬러링북)과 코로나19 예방 위생용품(마스크, 목걸이 줄, 손 소독제)으로 구성됐다.

오는 31일 자정까지 ACC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누리집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ACC 집콕꾸러미'를 무료로 전달한다.

한편 문화상품으로 개발된 스캐치북과 컬러링북은 ACC 주요 공간과 콘텐츠를 그림으로 담아 스캐치 기법과 채색을 통해 ACC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ACC 스캐치북과 컬러링북은 문화상품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강석이의 유머인생  
**밤벌레의 행복**  
이기원 지음

정가 12,000원

##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